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2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II

2024 파리올림픽 결산

개회식 논란부터 수질·시설·성별 논란까지...말도 탈도 많던 대회

문채현 뉴시스 기자

오피니언: 리셋 코리아

선수 위에 군림하는 경기단체

류성옥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MBC 뉴스투데이

최소규모 선수로 16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

김수근 MBC 기자

김만흠(폴리뉴스 논설고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칼럼

올림픽,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단상

김만흠 폴리뉴스 기사

“여권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

여성도 남성도 아닙니다...스포츠 딜레마 '간성' 선수

김정연 중앙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개회식 논란부터 수질 시설 성별 논란까지... 말도 탈도 많던 대회[파리올림픽 결산]

17일 동안 펼쳐진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환희와 아쉬움이 뒤섞인 한국 선수단의 여정도 마무리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인만큼 이번 대회에선 시작부터 경기 안팎으로 다양한 논란이 쏟아졌다.

파리올림픽은 개회식부터 남달랐다. 지금까지의 올림픽과는 다르게 경기장이 아닌 센강을 배경으로 한 야외무대에서 역대급 규모의 개회식을 연출했다 레이디 가가, 셀린 디옹 등 초호화 가수들의 공연부터 라파엘 나달, 지네딘 지단, 세리나 윌리엄스 등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까지 총출동해 개회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개회식 현장 아나운서는 한국 선수단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순간 북한을 뜻하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응에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연 연출을 두고도 시끄러운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개회식 중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 속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무대에 공연자로 드래그퀸(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등을 출연시킨 것이 보수계·종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연출을 맡았던 티에리 르볼 총감독은 해장 장면이 "네덜란드 화가 얀 반 비레르트의 '신들의 향연'을 참고했을 뿐,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르볼 감독은 물론 연출자 토마스 졸리, 공연자 DJ 바버라 부치까지 살해 협박을 받아야 했다.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한 뒤로는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말썽이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저탄소·친환경 대회를 지향했던 만큼 조직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선수촌 식당에 식물성 식품을 더 늘렸다. 하지만 기계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미국)를 비롯한 참가 선수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부족한 불균형 식단에 불만을 표했다. 또한 기후 비상사태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목표로 선수촌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 선수들은 폭염에도 창문을 열고 생활해야 했다. 더운 날씨와 많은 벌레에 선수들은 숙소에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주최 측은 각국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동식 에어컨 사용을 승인했지만, 부유국과 빈곤국 사이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한국 선수단 역시 찜통 버스에 고통받아야 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자체 차량을,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외부 숙소를 마련해 선수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과 브라질 축구 전설 코임브라 지쿠 등은 파리 대회 도중 도난 피해까지 당하는 등 부실한 시설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개회 전부터 가장 큰 이슈였던 센강 수질 논란은 대회 막판까지도 이어졌다. 대회 한참 전부터 수질이 좋아지지 않아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체육장관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직접 센강에 몸을 던지며 이상이 없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개회식 당일 내린 비로 오·폐수가 그대로 센강으로 유입되자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됐고, 트라이애슬론 공식 훈련에 이어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남자부 첫 경기까지 연기되고 말았다. 지난 1일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나선 타일러 미슬로추크(29·캐나다)가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 10여 차례 구토하는 모습은 센강 수질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 센강의 오염을 원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트라이애슬론 여자 개인전에 출전했던 벨기에 선수와 스위스 선수는 감염병에 걸리기도 했다. 트라이애슬론에 이어 마라톤 수영(오픈워터 스위밍)의 공식 훈련까지 취소되며 센강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모든 종목이 일정에 지장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선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뉴질랜드), 축구 선수 퀸(캐나다) 등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등장이 큰 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염색체가 문제였다. 여자 복싱 경기에 나선 이마네 켈리프(여자 66kg급·알제리)와 린위팅(여자 57kg급·대만)이 XY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켈리프가 첫 경기부터 상대 선수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전 미국 여자 수영 국가대표 라일리 게인스의 "남자는 여자 스포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시물에 "절대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공감을 표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롤링도 이들의 경기 사진을 공유하며 "어떤 장면도 '새로운 방식의 남성 인권 운동'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없다. 젊은 여성 권투 선수(카리니)가 함께 링에 오른 남성 선수(칼리프) 때문에 그동안 노력해 온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이것은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이들은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다. 여권에서도 여성으로 나와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켈리프는 직접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결국 두 선수 모두 해당 체급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며,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에 나서는 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선수 위에 군림하는 경기단체



중앙일보

류성욱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2024.08.12

지난 3일 경남 창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대학부 결승이 열렸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 달하고, 경기 직전엔 소나기까지 내려 불쾌지수가 세자릿수에 육박했다. 라커룸조차 없어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온돌마루 같은 인조잔디에 앉아 숨을 돌렸다. 경기가 끝나고 사달이 났다. 한 선수가 호흡 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응급조치를 서두른 덕분에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쉬쉬하던 축구협회에 비난이 쏟아졌다. 대회를 주관한 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최근 감독들이 모인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반애원·반협박투였다. 학부모나 선수들이 언론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감독들이 ‘관리’하라는 지시는 웃어넘길 만했다. 선수들은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탈의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의 반응에 경악할 금치 못했다. 탈의실을 마련하면 에어컨까지 설치해달랄 게 분명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금메달 5개가 목표라는 대한체육회의 겸손을 비웃고 싶었다. 우리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지난 5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느낌이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했던 안세영의 작심 토로가 분수령이었다. 안세영은 이날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안세영의 발언은 모든 올림픽 이슈를 덮어버렸다. 선수들이 어쩔사리 따낸 메달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경기단체 임원들의 비행기 좌석 등급 같은 사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세영은 현재까지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도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맞불을 놓았다. 진실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경기단체가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군림하려고만 한다”는 선수들의 하소연은 엄살이 아닌 듯하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선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단체는 선수위원회를 조직도에서 빼거나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선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구색 맞추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명의 위원은 학교팀이나 클럽팀 지도자 일색이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배드민턴협회는 김택규(사진 왼쪽) 회장을 포함해 부회장·이사 등 임원진이 40명이나 된다. 하지만 선수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할만한 위치에 있는 임원은 보이지 않는다.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규모가 가장 크다는 대한축구협회조차 선수 인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닫는 마당이니 다른 단체는 오죽하겠는가.

올림픽이라도 열려야 관심을 받는 비인기 종목 단체의 사정도 딱하긴 하다. 이번 일이 터지자 배드민턴협회는 “손흥민이나 김연아급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안세영을 깎아내렸다. 기업은 스타 선수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후원금을 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기업이 발을 빼면서 비인기 종목 단체는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세금으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이번 파문은 스타급 선수와 소통해 파이를 나눠야 경기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젊은 세대는 안세영의 발언을 경기단체 어른들의 ‘꼰대’ 근성에 대한 저항으로 여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올림픽 선전은 해병대 입소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겨울 해병대에 입소해 2박 3일 극기훈련을 받았다. 해병대 입소 훈련은 대한체육회 수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보여준 사례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입맛대로 써먹을 태세다. 의정갈등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여념이 없을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안세영 파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가뜰이나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를 놓고 각을 세웠던 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앞세워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베푸는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경기단체가 선수 위에 군림하는 폐단이 일소되길 바란다.



최소규모 선수로 16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

앵커

전 세계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금메달 13개를 따냈습니다.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률을 이루면서 종합 8위에 올랐는데요. 양궁 3관왕의 김우진과 임시현은 우리 선수단 MVP를 차지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회 첫날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나온 첫 메달을 시작으로, 우리 선수단은 대회 초반 통과 검, 활로 메달 사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격 10대 명사수 오예진과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이 금빛 총성을 올렸고, 펜싱 오상욱은 금빛 찰리기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효자 종목인 양궁은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4.9mm 차로 승리를 확정된 김우진의 금메달까지 양궁 5개 전 종목의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나란히 3관왕에 오른 김우진과 임시현은 우리 선수단 남녀 MVP에 뽑혔습니다.

[김우진/양궁 대표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제 써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를 써나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안세영이 금메달 확정 후 협회 행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태권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메달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받으며 올림픽 스타로 떠오른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동료들 향한 응원과 먹방으로 인기를 모은 탁구 신유빈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신유빈/탁구 대표팀]

"너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저희 언니들과 오빠들 함께 같이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48년 만에 선수단 규모는 최소였지만 금메달로는 역대 최다 타이, 전체 메달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개막 전 나온 회의적인 평가에도 144명의 태극전사들은 1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쁨과 감동을 안긴 우리 선수들은 이제 4년 뒤 LA올림픽을 준비합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김만흠 칼럼]

올림픽,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단상

올림픽 기간이다. 간혹 국가주의적 올림픽 경쟁에 불편한 시선을 갖는 사람도 있다.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는 올림픽 뉴스에 관심이 꽤 있는 편이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을 보낸다. 올림픽 중계와 관련 소식이 정쟁 소식을 조금은 뒤로 밀어내는 요즘이다.

배드민턴 여자 개인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의 협회 비판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배드민턴협회의 운영과 국가대표 선발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토로했다. 자신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 주목받을 만한 상황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귀국길에는 우리나라의 선전과 메달획득 선수들의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안 선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고 안 선수는 올림픽 종료 후에 본격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서로의 주장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협회가 안고 있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예상할 수 있겠다. 정부 주무부처와 감사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하니 체육단체 운영의 개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일에 손가락 얹기 빠질 리 없는 정치권이다. 배드민턴협회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정치참여의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의 조직' 정당의 실상을 먼저 돌아본 후에 할 소리다. 공적으로 지원받는 조직이 사적인 권력카르텔이 돼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정치협회'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

그래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의 당 지도부 후보들은 올림픽 이벤트를 활용한 선거전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권총 사격선수 복장과 포즈로 '사격재명' '출격 준비 완료 명사수' 해시태그와 함께 멋진 모습을 연출했다. 상대 여당 소속이자 올림픽 4관왕 진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이를 두고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로 응대하며 인용했다. '명사수는 명사수'까지 덧붙였다. 명사수(名射手)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사수(死守)의 명사수를 중의적으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다.

스포츠가 전쟁의 연성화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의 가장 원시적 상태를 전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상대를 죽이거나 굴복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공생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공화국, 협치 등이 그런 원리를 반영한 개념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는 전쟁으로 가고 있다. 상대를 적으로 보고 우리 편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전쟁이다. 권력투쟁일 수밖에 없는 정치에 그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다. 나찌의 정치이론에 힘을 보탰다는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를 두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나찌 이론가였다.

정치가 불가피한 권력투쟁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내부의 정치는 공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상대를 때려 눕혀야 하는 격투기가 있는가 하면, 득점으로 가르는 구기 종목도 있고, 기록 경쟁인 육상 경기도 있다. 구기 종목도 배구나 테니스처럼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종목도 있고, 진영을 넘어 몸싸움도 하는 핸드볼이나 축구 같은 경기도 있다. 한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정치 형태를 물어보면 핸드볼 경기 수준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서로 기록경쟁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지만, 일정한 영역은 침범하지 않은 채 상대를 공격하는 배구나 테니스 경기 정도도 좋다.

요즘 상황을 물어보면 대부분 격투기라고 답할 것 같다. 엄격한 규칙에 따르는 스포츠와 달리, 격투기식 정치는 승자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주도한다. 또 스포츠 격투기는 그 경기에 한정되지만, 격투기식의 제로섬 권력투쟁은 치명적이다. 기록경기처럼 호감경쟁을 하는 생산적 정치, 적어도 일정한 상대 영역은 존중 해주는 공생의 정치로 전환되길 기대하는 게 현재로서는 연목구어일까?

여성도 남성도 아닙니다... 스포츠 딜레마 '간성' 선수

‘성별 논란’은 2024 파리올림픽의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해 국제복싱협회(IBA) 주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XY 염색체’를 이유로 실격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66kg급)와 대만의 린위팅(57kg급)이 이번 올림픽에서는 나란히 결승전에 진출해서다. 두 사람 모두 여권에 기재된 법적 성별은 여성이다. 두 선수는 IBA가 각종 비위로 인해 공식 협회 인증을 박탈당함에 따라 “여권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에 따라 올림픽 무대에 섰다. 이마네 칼리프 선수는 현지시간 9일 오후 열린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간성(intersex) 선수’ 논란...

대부분의 사람은 XX 염색체를 가지면 여성,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성의 특성을 각각 가지고 여성, 남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XX 또는 XY 염색체를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종 의학적 이유로 신체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신체적 특징이 성염색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들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의학적으로 이들은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닌 간성(intersex)이라고 칭한다. 간성 선수의 성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10년 전부터 스포츠계에 등장했다. 2014년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를 당한 인도 여자 육상 선수 두티 찬드가 대표적 사례다. 연맹은 찬드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남성 수준이라 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연맹은 찬드에게 ‘약물 또는 수술로 호르몬을 낮추라’고 권고했으나 찬드는 거부했고,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법정(CAS)에 연맹을 제소했다. CAS는 찬드의 손을 들어줬다. 찬드가 좋은 운동능력을 보인 데에 훈련 등 다른 요인도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이 유독 크게 도움을 줬다는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찬드를 출전 정지시킨 규정도 2년 내 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폐지하라고 했다.

데뷔 때부터 논란, 6년째 법정 싸움 중인 남아공 육상선수

첫 법정 싸움을 한 건 찬드였지만, 스포츠계에 ‘여성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 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다. 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800m 금메달을 딴 뒤 성별 논란이 불거져 성별검사를 받았는데, XY 염색체를 가졌고, 자궁·난소가 없고 잠복고환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호르몬 수치가 일반 여성의 3배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제육상연맹은 이후 성별 구분을 성염색체 검사로 하던 걸 폐지하고, 남성호르몬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일반 남성의 호르몬 수치 하한치인 10nmol/L를 넘으면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 선수가 400미터 허들 및 달리기 출전하려면 6개월 이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5nmol/L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개인정보라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스포츠계에선 세메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7~10nmol/L 정도로 추정한다. 주종목인 400m, 800m, 1600m 달리기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세메냐는 이 규정이 부당하다며 CAS로 달려갔다. CAS는 이번엔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세메냐는 이에 불복해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019년 연방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세메냐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CAS와 스위스연방대법원을 제소했다. 지난해 7월 ECHR은 “세메냐가 두 재판에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구제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스위스 정부는 6만 유로(약 8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위스 측에서 항소해 올해 5월 ECHR 대재판부 심리가 또 열렸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비인기 종목선수에 "기회 제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2_0002846549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논란 관련 조사 착수...유인촌 "체육정책 개혁 적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ports/article/6626149_36466.html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반기 국가대표 대상 국내 대학원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2087700007?input=1195m>

"경기장 공사 유찰 '종합체육시설' 빨간불"...세종시, 국비 확보 사활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143>

체육회장, 안세영 관련 "제도 개선·진솔한 대화로 정리할 것"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special/2024/08/11/ESXIDC5BRZGKRLPFYJ2BTWUEV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대한체육회 선정, 한국 선수단 MVP 김우진·임시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12000700641?input=1825m>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내년 하반기 착공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508105>

강원도, 강원체육 육성계획 수립 체육인재 양성 강화

<https://www.fnnews.com/news/20240812142510593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